**책 제목: 선교 매트릭스** (이영 지음, 좋은땅)

이 책은 선교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선교가 무엇이며 평신도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준다. 미래 선교의 전략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다양한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며 독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교회와 (해외)선교]**

- 요약: 선교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필수다. 선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하고, 그 후 선교사를 전적으로 돌보며 돕는 일을 해야한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선교에 직접 동참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선교단체와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어 전문 선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감상: 교회마다, 선교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선교사의 재정에 대해 교회가 100퍼센트 책임지는 일은 드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책에 쓰여진 내용처럼 선교사의 영, 정서, 신체, 인간관계, 가정까지 세심하게 선교사를 돌보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교회가 이 모든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선교지에서 지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 보다는 선교단체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재정관리, 자녀의 교육, 부모님케어, 선교사의 건강관리 등 교회보다 선교단체가 우리 가정의 필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케어해주었다. 교회가 선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파송한 선교사를 돕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멤버케어]**

- 요약: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선교사가 대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선교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인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듯,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교사를 돌보아야 한다. 선교사 멤버케어는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업이 상담사라면 선교사를 상담할 수 있고, 의사라면 선교사를 치료해줄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고에 대해 격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교 보고할 시간을 주는 것 만으로도 선교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를 멤버케어하면 교회와 성도들도 축복을 누린다.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 입국한 선교사와 은퇴 선교사에 대한 멤버케어도 중요한 이슈이다.

- 감상: 어렸을 때 선교단체의 세심한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회는 파송/후원 선교사들에 대한 멤버케어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기도제목을 공유하여 기도하고, 명절에 선물을 보내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간혹 단기선교팀이 방문하는 것 이외에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은퇴 후 선교사들의 재정 후원 부분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목회자와 교인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하다. 후원 선교사님들이 한국 방문 시 초대해서 선교 보고나 말씀을 듣는 일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퇴 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몇몇 MK는 선교 현장에 가고싶어도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번다. 사실 MK들이 선교사가 된다면 선교지 적응이나 언어사용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매우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1세대 선교사의 자녀들인 2세대 선교사들이 여러 중요한 선교적 업적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펼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되기를 소망한다.

**책 제목: 놀라우신 하나님** (반다혜 지음, 국민북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아버지(목사)의 도전을 받은 저자는, 가장 아름답고 젊고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다. 20대 중반에 약 1년 3개월 간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섬기며 기록한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저자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는지 매우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과 부르는 인생 찬가]**

- 요약: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보여주신 선교는 인생 궤도를 억지로 멈추고 해야 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희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자의 삶의 모든 과정을 선교적인 삶을 향해 설계하신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두렵지 않고, 뒤쳐지게 하지 않으시고 돌보아주실 것을 믿는다. 선교 자체가 삶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축복이다.

- 감상: 최근에 선교지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선교가 가득한 삶이었는데, 왜 이제야 이런 확신이 든건지, 좀 늦었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 동안은 ‘희생해도 괜찮은 시기’를 기다린 것 같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희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나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삶의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치료법]**

- 요약: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완벽히 편안하지 못하고, 완벽히 물들어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나이로비에 간 후로 제한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된 후 평안해졌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도 치료가 된다.

- 감상: 나도 별무리마을의 한 일원이 된 후로 완벽히 물들어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그러지 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별무리마을 주민이 되고 별무리학교 교직원이 되었을 때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져서 많이 힘들었다. 사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좀 어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방법을 잘 몰랐고, 육아와 다른 여러가지 바쁜 일을 핑계로 processing 하지 않고 차단한 채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반다혜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지나온 나의 떠돌이?같은 삶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을 읽은 이후로 드는 생각은, 굳이 어색한 부분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해결될테니까…!

**[주와 함께 가는 길]**

- 요약: 선교지에서 성공과 실패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는 일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존재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 웃고 위로하는 삶이 펼쳐진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성취하지 못해 힘겨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 감상: 선교사인 나의 부모님은 비교적 성공적인 사역을 해 오셨다. 현지인들도 부모님을 좋아하며 잘 따르고, 동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부모님의 성품과 능력을 늘 높게 평가하신다. 교장이나 총장의 위치에서 학교를 섬기는 기간동안 학생수도 늘고 시설도 늘어나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설되는 등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참 감사한 일이다. 반면,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그렇다할 만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멈춰도 되는데, 선교후원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미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난 2월 우간다에 방문해서 선교현장을 직접 체험해 본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선교사님들이 그저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느꼈다. 일을 잘 하든 못하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고, 후원금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울며 회개했다. 예전에 아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들 옆에서 함께 지내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낮은자의 마음으로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고백이 주님의 길인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으셨던 것 같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려고 시작한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고자 시작하신 사역! 잘 기억하고 선교지로 가야겠다.